

■ 2016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심의평

- 사업 유형 : 2016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회의일시 : 2016. 3. 25(금) ~ 4. 5(화)
- 회의장소 : 대학로 아카데미 전용공간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6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구생 모집에는 총 341명이 신청하였고, 지원심의를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심의위원 5개분야(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오페라) 17명에게는 341건의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사전에 발송하였고, 심의위원별 개별 평가에 따라 채점된 점수의 평균 중 고득점자 116명을 2차 심의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4월 4일(월)에서 4월 5일(화)까지 이틀간 진행된 2차 인터뷰 심사에서는 심의대상자 116명 중 불참자 2명(문학 1명, 시각예술 1명)을 제외한 114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2명(시각예술 1명, 음악 1명)은 부득이한 사유로 전화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생 후보자의 아카데미 프로그램 참여의지, 지원신청서 상 연구 및 창작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발자 70명을 선정하였다.

2. 분야별 세부 심의평

<문학>

심의 과정에서 한국의 젊은 시인과 소설가들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문학적 열정과 심도 깊은 문제의식과 만날 수 있었다. 현대의 서정성, 언어에 대한 탐구, 후각의 상호주관성, 신화의 현재적 변용, 청소년 문학에 대한 지향, 인공지능과 양자역학에 대한 관심, 정상/비정상의 억압구조, 희극성에 대한 모색 등 젊은 시인과 소설가들의 문제의식은 매우 다양하고 심층적인 것이었다.

시부문의 경우 지원자들의 작품이 고르게 수준이 높았다. 서정이나 관념의 투사와 같은 내용위주의 전개보다는 언어에 대한 민감한 자의식을 지니고 언어형성의 과정자체에 초점을 맞추려는 시들이 많았다. 따라서 짜여진 기획이나 설계가 아니라 시어가 생성되는 현장을 제시해주는 듯한 분위기였다. 이미지나 리듬을 구사하는데 있어서도 전형적인 패턴보다는 새로운 배치와 전환을 독특하게 시도하고 있어 최근 시의 언어 실험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모색하려는 젊은 시의 과감한 도전을 읽을 수 있는 자리였다.

한편 소설의 경우 구상은 완벽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개연성이 부족거나, 밑그림은 완벽하나 '작가의 메시지'가 없는 경우, 착상과 영감은 뛰어나나 전체적으로 구성이 미덥지 못한 경우, 거대 서사를 작품 안에서 제대로 형상화 시킬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경우 등을

감지하는 슝슝함도 있었다. 그러나 2차 인터뷰 심사에서는 지원 작가들이 지향하는 작품 경향이나 세계관 및 예술관을 확인하는 등 지원 작가의 그간의 활동과 좋은 작품을 쓰겠다는 투지만은 의심되지 않아 우려가 기대로 바뀌는 시간이기도 했다.

2016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가 젊은 문인들의 문학적 역량을 배양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지원자들에게도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더불어 문학 출판 경기가 불황인 작금의 시대에 국가 지원에 힘입어 좋은 작가, 좋은 작품이 많이 양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 심의위원 김동식, 윤순례, 이수명

<시각예술>

작가부문의 경우 대체적인 인상은 매체의 다양성에도 부족하고 주제의 깊이있는 보편성, 빠있는 문제의식, 방법론적 실험 등에 있어서 오히려 다양성이 부족해보여 심사가 어려웠다. 트렌드를 따르는 것보다 내밀한 긴장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따라서 비교적 뚜렷한 개성과 예술관을 가진 지원자들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다양한 장르의 작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인터뷰 심사에서는 포트폴리오 속에 있는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도록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질문을 했다. 자신의 작업 의도와 철학적 사고가 조형적으로 얼마나 잘 표현되고 있는지, 그 연결점이 설득할 만한 것인지 보는데 주력했다. 취지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표현방식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는 배제하였고, 취지가 너무 단순하여 향후 조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제한이 있는 것도 제외시켰다. 표면적 세련미 보다는 심층에서 우러나오는 공명과 공감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큐레이터부문의 경우 비교적 좋은 경력에 비해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바가 모호한 지원자가 많았다. 연구계획의 명확성과 일관성 있는 연구 및 글쓰기가 병행되고 있는지 등을 참작하였고, 진지한 연구자세가 되어있는 후보자를 선택하였다. 또한 경험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독특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한 지원자도 배제하지 않았다. 큐레이터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현실에 대한 치열한 인식과 문제의식의 맥을 갖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 대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시대인식에 기인하는 ‘지금, 이곳’의 뜨거운 상황들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석의 열망이 없다면 전시는 그럴싸한 교양의 과시나 문화소비재 이상이 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한 숙고가 큐레이터지망생들에게 있기를 기대한다.

- 심의위원 심상용, 이주은, 이준

<공연예술-연극>

연출의 경우, 연출가의 덕목과 소양을 중점적으로 보았다. 아울러 새로운 연출경향에 대한 실험적 요소가 돋보이는 이들을 위주로 선발하였으며, 연출가의 덕목과 소양을 중점적으로 보았다.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깊어서 수업에 대한 적극성이

우려 될 경우 배제하였고, 연극과 삶에 대한 성찰과 애정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되는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었다. 향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과정이 차세대 신진예술가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극작의 경우, 장막극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긴 호흡의 이야기를 써본 경험이 있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으며, 언어와 대사를 다루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았다. 또한 작가로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올해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교육 방법론과의 조우가 지원자에게 도움이 될 시기인가 등을 보려고 노력하였다. 아직 극작술이 미미하더라도 대극장에 어울리는 소재를 가진 작가에게 가점을 주었다

- 심의위원 고선웅, 양정웅, 오은희, 장성희

<공연예술-무용>

평가 과정에서 무용분야 연구생의 관심분야 및 창작주제와 작품창작계획에 대한 리포트 검토를 우선했으며, 인터뷰를 통해 지원자의 생각과 계획을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구계획의 진정성과 구체성 등을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최근 국내외 무용창작동향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창작방향과 계획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듣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경향분석 능력 및 선구적 창작을 위한 연구태도 등을 검토했다. 2016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경우 특히 전체 선정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연수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도 고려했다.

선정자 개인의 활발한 연구는 물론 선정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훌륭한 창작 작업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심의위원 김용철, 안애순, 장인주

<공연예술-음악·오페라>

음악의 경우 양악·국악분야 선정자들의 작곡 스타일이 많이 다르지만 최종 창작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크며 기존에 대중음악적인 요소가 많은 활동을 한 작곡가의 경우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창작화 될 작품스타일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 하였다.

오페라의 경우, 지원이 다소 적었으나 제출된 작품의 작곡기법, 오페라적인 요소를 참고하여 가능성이 많은 음악분야 지원자를 1차 선발, 심의위원과 지원자간의 협의를 통해 오페라분야로 최종 추가 선정 하였다. 오페라아카데미에서 이후 작품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음악·오페라 분야 지원자들은 전반적으로 목표가 분명하고 학습의지와 열정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에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를 통해 새로운 분야로의 입문과 창작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대감이 크다. 또한 젊고 의욕적인 작곡가들과 함께 아카데미를 이끌어주실 선생님들께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 심의위원 이종진, 임준희, 장기범, 한상일